

사라지는 것은 흔적을 남긴다(2)



부산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팀 원장
전용문(소설가)

제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던 날, 김현수 대위는 아침 출근길에 그의 아내와 심하게 다투었다. 제대 후의 진로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 공장 고향으로 내려가서 병원을 내겠다는 김현수의 의견에 대해 그의 아내는 조심스럽지만 반대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 서울 떠나면 이제는 또다시 서울로 되돌아 와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개원을 서두르세요?
- 모르는 소리를 하는군. 더 많은 사람들이 터를 잡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괜찮은 자리에 간판부터 걸어놓아야 해.

두 사람 사이에 물론 미묘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김현수의 아내는 서울을 떠나 시골에 묻혀 살아가는 것 자체를 썩 달가워하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의원을 개원하는데 필요한 경비도 결코 무시 못 할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내 놓고 말은 안하고 있었지만 김현수는 개원할 때 아내의 힘을 빌리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아내가 무슨 여유로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싶겠지만 결국 아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처가 쪽의 돈 줄이다. 얼마만큼이라도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수월하게 의원 문을 열 수가 있다. 그의 아내는 그 걸 눈치 채고 있었다. 그래서 가끔 샅쭉거렸다.

잘 살던 집이 망했다고 이제 와서 처가 덕으로 병원을 차리겠다는 게 말이라도 되는 노릇인가? 그에 비해 김현수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시작할 때 약간의 도움만 준다면 형편 닿는 대로 갚아나가겠다는 데 뭐가 잘못 되었나? 누가 공짜로 돈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은행보다는 그 쪽에서 돈을 융통하기가 쉬우니 빌리지는 것뿐이다. 그리고 처가 쪽 형편으로도 그 정도는 별 문제가 아니다. 아내는 시골에 가기가 싫어서 공연히 심통을 부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날 아침 출근길에 김현수는 혼자 소리 지르며 대문을 팽소리 나게 닫고 밖으로 나왔다.

- 있고 싶으면 당신 혼자 서울에 있어요. 나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말테니.

아내는 말이 없었다. 닫힌 문 안쪽에서 쫓알거렸을 것이다.

- 당신 마음 누가 모를 줄 알고.

그 날이 토요일이라는 것은 출근을 한 후에야 알았다. 제대 말년이 되면 모든 시간이 정지되어 버린다. 하품을 하고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고들 하나, 모든 일은 정체되고 시간은 한없이 느리게 흘러갈 뿐이다. 오전 근무가 끝나고 모두가 퇴근을 서두르고 있을 때 그는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하던 일을 마무리 짓기 시작했다. 토요일 퇴근 무렵이면 으레 그러하듯이 마음의 빗장을 풀어 놓은 듯 느슨한 상태가 되어 일주일 동안의 긴장감을 일시에 해집어 놓긴 하나, 요즘 들어 김현수의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긴장감마저도 결여된 지가 오래 되었다.

주말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슨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료 군의관들이 테니스나 같이 치자고 했으나 웬지 모든 것이 시들해져버린 지금에는 그것마저도 귀찮았다. 지독한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섰다. 주말에 길 위로 쏟아진 수많은 차량들의 물결에 한동안 넋을 놓고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어 책상위에 잡다하게 늘려져 있는 서류들을 주섬주섬 간추리기 시작했다. 환자 병상 기록지며, 각종 검사의 의뢰용지, 방사선 검사 판독지, 학회 참석을 요청하는 편지, 환자와 대담을 나눈 내용을 적어 놓은 종이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홍보용으로 나누어준 메모지, 전화번호를 적어둔 수첩 따위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그것들을 대충 쓸어 모으며 가슴 한 편으로는 이 모든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꼈다.

군대생활은 역시 전방이 좋았다. 군의관 귀한 줄 알고, 주말이면 동료들과 어울려 한적한 산골에서 테니스도 열심히 쳤다. 신혼 초의 아내도 고분고분 했으며, 봄이 되면 끼리끼리 모여서 화전놀이도 갔다.

제대를 일 년 남겨두고 작년 봄에 서울 소재 통합병원으로 전속 오고부터 김현수 대위가 하는 일이라고는 하루하루의 제대 날짜를 세고 앉아 있는 게 고작이었다. 제대 후에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가 의원을 열겠다는 생각은 불변이었으며, 개원의 성공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확신을 언제나 품고 있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빈 노트에 의원을 차리는데 필요한 수없이 많은 준비물을 적고 또 적었다. 심지어 봉합 바늘의 개수까지도. 이제 완벽하게 정리해둔 노트의 순서대로 진행만 하면 되는 것이다. 고향에 의원으로 임대할 건물도 봐두었다.

사람들이 개원이 쉽지 않다고 조바심을 내는데, 그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무엇이 어려운가? 능력대로 환자 치료하고 돈 벌어 병원을 차츰 키워나간다는 것은 의사된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지극히 손쉬운 일이 아니던가. 더군다나 고향의 집은 형으로 인해 몰락을 맛보았다고 하나 그곳은 아직 누대에 걸쳐 함께 살아온 수많은 친·인척들이 터전을 잡고 있어 그에게 알게 모르게 울이 되어줄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때로는 빈손을 벌리고 찾아와 그를 곤혹스럽게도 만들겠지만, 대부분은 지방 도시에 활거해 생활의 뿌리를 내리고 안정되어 있는 부류들이다. 시장 장사치에서 목욕탕 주인, 교장 선생, 국회의원까지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그가 가서 문을 열기만 하면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로 몰려올 것이 분명하다.

아직까지 그들 문중에 누구도 의사가 되어 고향을 지키고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지극히 온당했으며 또한 현실적 감각에 기저를 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데 제대까지의 시간은 너무 느리게 흘러가고 요즘 와서는 마누라까지 심통을 부리고 있으니 그는 매사에 의욕을 잃고 있었다.

늦은 퇴근길이라 생각하고 썰물처럼 사람이 빠져나간 텅 빈 복도를 혼자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정신과의 박기원 대위를 만난 것은 뜻밖이었다. 의과대학은 같은 해에 졸업했으나 전문의 수련기간이 늦어져 김 대위는 일 년 늦게야 군에 입대했다. 그는 아직 제대 날짜를 일 년 이상 남겨두고 있었다.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박기원 대위를 시인(詩人)이라고 불렀다. 박 대위 자신이 시(詩)를 쓰는지, 아니면 시인 같은 행동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지는 모르나 상당히 유머러스하고 위트가 있어 원내에서는 꽤나 인기 있는 군의관이었다. 어느 간호장교 하고도 스스럼없이 농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군의관이기도 했다. 박기원 대위가 사람 좋은 웃음을 만들며 김현수의 팔꿈치를 툭 쳤다.

- 제대 날짜 카운터다운하고 있으면 군대생활이 지옥 같을 텐데 뭐 하느라고 토요일 날 이렇게 늦게 퇴근하는 거요?

- 말해서 뭘 해요. 정신 놓고 있다가 이 지경이 되었소.

- 말년에 집에 가서 늘어지게 낮잠이나 자기에는 너무 가까운 주말인데 무슨 좋은 계획이라도 없어요?

- 이 신세에 무슨 주말계획은? 일이 없어서 탈이요. 재미있는 건수라도 있다면 나도 좀 끼워 주시오.

- 소인보고 꺾수 물어보니, 그래 군대 선임께서 그 지경이니 나아 할 말이 있을 수가 없지요.

- 김 대위야 세상이 다 알아주는 걸물 아니요. 그 재주를 갖고 처량한 주말이라니 심히 안됐구려.

- 나아 그렇다고해도 상관없는 일이지만, 곧 떠날 김 대위님 위로라도 하게 서울 구경이나 갑시다.

- 서울 구경이라니? 이곳이 서울이 아니고 제주도나 된다는 말이요? 서울 살면서 새삼스럽게 서울 구경은 또 무슨 말이요?

- 참 모르시네. 서울이라고 온통 다 다녀보지는 않았을 테고, 우리가 발 닿지 않는 곳도 수두룩할 텐데 그런 곳이나 찾아다니며 마지막 발자국이나 남겨줍시다. 오래지 않아 이 곳을 떠날 모양인데 시간 날 때 뭐든지 많이 봐줘야 후에라도 여한이 없지요.

- 글썄. 간다면 어디를 갈 요량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소.

- 그야 발 내키는 대로 가면 되지요.

그들은 함께 병원 정문을 나왔다. 겨울 해가 중천에 걸려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 닥쳐 그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헤집어 놓았다. 바람은 몹시 심하게 불어왔으나 오후의 햇살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투명하여 마치 정성들여 닦아 놓은 유리판을 깔아놓은 듯 매끄러운 느낌마저 들 지경이었다.

통합병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정류장에 멈춰 서 있는 버스의 뒤 유리창으로 바라보이는 차 속은 햇빛을 받아 유난히 포근하게 느껴졌으며, 사람들은 등을 뒤 의자에 기댄 채 한가하게 어디 먼 곳에 여행이라도 떠나는 듯 평화롭게 보였다.

박기원 대위가 말했다.

- 아무 차나 잡아타고 서울 번두리로 나가봅시다.

정류장에는 서너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서서 추위로 몸을 비동거리며 버스를 기다리는 무리들이 보였다. 그들 속에 섞여 두 사람은 지나가는 몇 대의 버스를 그냥 보냈다. 이윽고 또 한 대의 버스가 왔을 때 그들은 잠깐 눈짓을 교환하고는 함께 차에 올랐다. 승객이라고는 거의 없는 텅 빈 버스였다. 햇빛이 넉넉하게 들어오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종종걸음을 치고 있는데 버스 속은 마치 봄날 온실마냥 포근하기 그지없었다.

차가 출발한 후 김현수는 유리벽에 얼굴을 기대고 창밖의 움직이는 물체를 바라보았다.

그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사물이 움직이고 있다. 내가 움직이나? 다른 사물이 움직이나? 지구가 움직이나? 아니면 거대한 우주 전체가 움직이나?

마침내 그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 지구를 포함한 우주 전체가 부단히 움직이고 있으므로 유리벽에 얼굴을 기대고 정물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그도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차는 한강 다리를 지나 신촌 로터리를 막 벗어나서 동교동 방향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그들은 차의 행선지도 확인해보지 않은 채 버스에 올랐던 것이다. 사람들이 불비지 않는 차를 골라서 햇빛 잘 드는 창가에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에 올라탔던 것은, 어느 버스나 종점에 닿게 되면 그 곳이 곧 도시의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는 성산회관을 지나 수색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다. 그동안 몇 사람들이 타고 내렸으나 여전히 차 속은 텅 비어 있는 상태로 운행하고 있었다. 마치 관광버스가 승객들의 요구에 따라 쉴 곳 쉬어가며 천천히 여유 자적 가고 있는 듯 했다. 차가 드디어 도심에서 벗어나고 시골 길로 접어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햇빛은 들녘에는 풀 한포기 보이지 않고 황량했으며, 그 들녘의 왼편 끝 쪽에는 기다란 방죽이 가로 놓여 있었다. 한강의 독을 형성해놓은 곳이다.

제법 널따란 논에는 물을 받아 얼려두고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곳도 보였다.

그런 곳에는 걸어놓은 만국기가 불어오는 강바람에 마구잡이로 찢겨져 휘날리고 있었고, 동네 꼬마들이 옹기종기 모여 얼음을 지치고 있었다. 한편에는 어묵국물을 끓여 파는 할머니가 언 손을 마주잡고 부비고 있었으며 길가에 띄엄띄엄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자리 잡은 집들은 초라한 몰골로 내려앉아 겨울 외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듯했다.

이윽고 버스가 종점에 닿았다. 행주산성이 인접해 있는 마을 앞이었다. 마을을 끼고 옆길로 난 논두렁길을 타고 언덕위로 올라섰다. 왼쪽 편에 행주산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보였다.

김현수 대위가 입장권을 살 동안 박기원 대위는 부근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 마실 것을 샀다. 그가 들고 오는 봉지가 제법 볼록했다.

- 이렇게 추운 겨울에 뭘 마시겠다고 그렇게 많이 샀어요?

- 산상에서 왜구와 장렬하게 싸운 장군을 추모하여 일 배를 하는 것 역시 나쁠 것은 없지요.

행주산성은 성역화하여 입장료를 받게끔 조성해놓은 공원이었지만 봄이라면 몰라도 강바람이 거칠게 불어오는 겨울철에 방문객이 있을 리가 없었다. 산성 안으로 들어갔다. 관광지로 조성해놓은 영내는 곳곳에 잔설이 쌓여 있을 뿐, 생각대로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 텅 비어 있는 공간이었다. 바람 불어오는 이 겨울에 뭘 볼 게 있다고 산성행이냐고, 누구라도 그들 일행을 보았다면 머리가 약간 돈 사람들이라고 치부했을 것이다.

몇 백 년전 권율장군은 이곳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한양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싸웠고, 성안의 백성들은 그들 나름대로 발 벗고 나서 왜군을 물리치는데 목숨을 걸었다. 부녀자들은 행주치마에 돌을 담아 날랐고 그 돌들은 성문을 기어오르는 적군을 향해 던져졌다. 지금 그때의 흔적은 자취도 찾아볼 길이 없이 정적만 감돌고 있었다.

김현수가 걸어가는 길 앞쪽에 돌멩이 하나가 뒹굴어져 있었다. 그는 무심결에 돌을 주어두고 멀리 성 밖을 향해 던졌다. 돌은 성곽에도 훨씬 못미처 땅에 떨어져 뒹굴었다. 그는 한 시대 이 성을 지키기 위해 지극히 유용하게 사용했음에도 모를 한 개의 돌에 대하여 생각했다. 돌은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돌덩어리다. 그러나 돌은 사용 방법에 따라 그 쓰임새가 천차만별이다. 집을 짓는 건축자재로도, 원시인들이 동물을 잡기 위한 도구로, 무심코 걸어가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로도, 혹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로, 아니면 그냥 길가에 나부러져 있는 쓸모없는 한 개의 돌로서도 그 존재가치는 다양하다.

돌을 칼로 대치하여 생각할 수도 있다. 하물며 항용 그가 사용하는 외과의사로서의 칼의 용도는 어떠한가? 잘 쓰게 되면 장군의 명검에 비유할 만큼 값진 칼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산적의 무모한 칼날보다도 더 위험하다. 많은 환자들이 의사들의 용맹스러우나 지혜롭지 못한 칼로 인해 그들의 아까운 생명을 단축시켜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회의를 모르고 확고한 신념만을 믿고 칼을 휘두르는 자는 혁명가가 되어도 위험하지만 의사가 되어서도 곤란하다. 결과는 의술이 기술로 전락하여 무모한 인명을 아무런 양심적 가책도 못 느끼며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잔설을 밟으며 계단을 걸어 권율장군의 동상이 있는 언덕위로 올라갔다. 언덕 위에 서니 불어오는 강바람에 그들이 입고 있는 아전잠바가 휘감기며 한옆으로 휘몰렸다. 그들은 아전잠바의 지퍼를 있는 데까지 다 끌어올렸으나 목덜미를 파고드는 황소바람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는 수 없어 양호주머니에 손을 찢어 넣은 다음 두 손을 겹뿔의 안감을 앞 쪽으로 잡아당겨 바람에 흩날리지 못하도록 꼭 붙들고 있었다.

언덕위에서 내려다보이는 강은 반쯤 결빙되어 희고 거대한 뱀이 산 아래에 기다랗다 드러누워 있는 형상을 띠고 있었다. 김현수는 강을 바라보고 심호흡을 한 후,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깔졌다. 얼어붙어 있는 강바닥에 그의 오줌 줄기가 닿아 순식간에 얼음이 녹고 강은 본연의 유장한 흐름으로 되돌아가 유유히 인천 앞 바다를 향해 흘러가기를 바랐으나 그의 오줌 줄기가 강바닥에 닿기에는 그 거리는 턱없이 모자랐다. 꿈속에

서 남산에 올라가 오줌을 누고 서라벌을 물에 잠기게 만들었다는 김유신의 동생이 아니 바에야 그의 기도는 어린 아이의 취기에 불과할 뿐이었다. 불어오는 강바람에 그들의 얼굴이 굳어져 옆자리에서 대화조차 나눌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 곁에서 소변을 함께 누고 있던 박기원 대위가 고함을 질렀다.

- 이곳에 죽은 왜놈들 영혼이 있으면 내 오줌이나 받아먹고 밤새 악몽이나 꾸어라.

박 대위가 단위에 엎어둔 봉투를 풀어 술과 안주를 꺼냈다. 술병과 오징어와 콩치 통조림이 쏟아져 나왔다. 술병을 열거나 콩치 통조림을 딸 어떤 도구도 준비해오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들은 순간 지극히 난감한 기분에 젖어 들었다.

박 대위가 입으로 뚜껑을 거칠게 뚫다. 병을 들어 얼어붙어 있는 땅위에 서 너 방울을 흘뿌리고, 장군의 단위에 단정하게 놓았다. 불어오는 바람에 술병이 곧 쓰러질듯해서 곁에 선 김현수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몸을 돌려 바람을 막았다.

김현수 대위의 아전잠바 뒷주머니에서 손톱깎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것은 낡고 오래되어 중간에 있는 칼끝이 동강나 있었으며, 남이 있는 부분도 작고 여리기가 젓가락 같았다. 저것으로 무얼 하지? 박 대위는 뭉통거리진 칼끝을 강통위에 엎어두고 손바닥으로 내리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동안 입고 있는 잠바 아랫부분이 바람에 제멋대로 휘날렸다. 무언극을 보고 있는 듯한 회화적 풍경이었다. 두세 번 내리치고는 박 대위는 손바닥을 입 가장자리로 갖고 가 호호 불어대기까지했다. 아무렴 달갈로 바위 치기지. 저 무딘 칼로 강통을 어떻게 열어? 김현수 대위가 잔설에 묻혀 있는 돌멩이 하나를 찾아내어 그걸 그에게로 건넸다.

- 이 걸로 칼등을 쳐봐요. 콩치 한 조각 얻어먹으려다 김 대위 손바닥 다 망가지겠네.

돌로 칼등을 내리치기를 몇 번, 겨우 강통은 아가리를 조금 벌여놓았고 박 대위는 나무젓가락으로 내용물을 파내어 종이컵 속에 쏟아 부었다. 재단이 차려졌다. 가득 부은 술잔과 콩치가 제멋대로 담긴 컵과 오징어 한 마리가 장군의 비석 앞 상석에 놓여졌다. <계속> ☺